『世宗實錄地理志』磁器所 品等基準 硏究
- 慶尙道를 중심으로 -

장 동 철*

<목 차>

Ⅰ. 머리말
Ⅱ. 磁器의 品質
Ⅲ. 磁器의 使用處
Ⅳ. 맺음말

국문요약

『世宗實錄地理志』에는 139 곳의 磁器所가 八道에 분포되어 있으며, 磁器所의 數·위치·品等이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초기의 磁器 제작상황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磁器所 연구는 지역별로 調査가 진행되어 品等別 磁器의 특징이 밝혀지는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上品·中品·下品으로 구분된 품등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논문은 磁器의 品質과 使用處에 주목하여 上品·中品·下品 磁器所가 모두 있는 경상도 자기소를 중심으로 문헌기록을 참고하고 자기를 비교·분석하여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의 品等基準을 연구한 것이다.

문헌기록에 있는 '品'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手工業品인 磁器와 紙, 鑛物인 鐵과 硫黃, 田稅 등의 기록에서 '品'의 의미는 모두 '品質'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世宗實錄地理志』 경상도의 上品 磁器所 2 곳, 中品 磁器所 7 곳, 下品 磁器所 11 곳 등 총 20 곳에서 출토·수습된 분청사기를 대상으로 器種, 文樣裝飾技法, 文樣, 胎土, 釉色, 銘文, 窯道具 등을 검토해 보았다. 품등별 자기의 차이점 중 品質과 가장 관련되는 부분은 분청사기의 胎土와 釉色에 있었다. 胎土는 상품 자기는 氣孔이 없고 치밀하며, 중품 자기는 약간의 沙粒이 있으나 치밀하였다. 하품 자기는 氣孔과 沙粒이 많아 치밀하지 못하다. 釉色은 상품·중품 자기가 灰綠色인 반면 하품 자기는 黃褐色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품질의 차이는 충청도의 중품·하품 자기소에서 수습된 분청사기의 비교를 통해 하품의 분청사기가 중품의 분청사기에 비해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품등별로 품질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의 品等基準의 하나는 '磁器의 品質'을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보았다.

磁器의 使用處는 문헌기록과 『世宗實錄地理志』 상품·중품·하품 자기소에서 출토·수습된 분청사기와 백자를 참고로 하여 王室과 官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王室用 磁器는 상품 자기소로 比定된 廣州, 高靈, 尙州 등의 가마에서 출토·수습된 백자를 참고로 하였다. 王室에서 사용된 백자는 廣州·高靈·尙州 상품자기소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첫째, 廣州·高靈·尙州 등의 상품자기소에서 제작된 백자는 無文·陰刻·象嵌백자이며 官司銘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왕실에서 백자를 사용한 시기는 세종 15년(1433)~세종 29년(1447)인데 廣州·高靈·尙州 상품자기소에서 백자가 제작된 시기는 1425년~1460년대인 점을 제시하였다.

官司에서 사용된 磁器는 官司銘 粉靑沙器의 예를 살펴보았다. 敬承府銘 분청사기와 恭安府銘 백자를 제외하고는 內贍銘 분청사기는 전라도 중·하품 자기소, 內資銘 분청사기와 禮賓銘 분청사기는 충청도 중품자기소, 地域銘과 함께 새겨진 仁壽府銘 분청사기와 長興庫銘 분청사기는 경상도 중·하품자기소에서 제작되었다. 各 道의 중·하품자기소에서는 각기 다른 사용처인 官司에 분청사기와 백자를 貢納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의 또 하나의 品等基準은 '磁器의 使用處'를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보았다.

주제어 : 『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上品·中品·下品 磁器所, 品等基準, '品'의 意味, 磁器 品質, 磁器 使用處, 王室, 官司

본 논문은 2011년도 동아시아문물연구소학술재단의 연구지원에 의한 것임. 또한 이 논문은 필자가 동아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 磁器所 硏究」, 2011)의 126~167쪽에 실린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위원

www.kci.go.kr

Ⅰ. 머리말

『世宗實錄地理志』(이하『世志』)는 세종의 命에 의해 1424~1432년 사이에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1454년『世宗實錄』의 편찬과 함께 그 부록으로 간행되었다. 이 지리지에는 全國의 139 곳의 磁器所가 八道에 분포하고 있으며, 上品은 4 곳, 中品은 44 곳, 下品은 84 곳, 品等表記가 없는 곳이 7 곳이 있다.[1] (표 1). 그런데 八道의 磁器所는 그 品等에 있어서 지역 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上品은 경기도(1 곳)와 경상도(3 곳)에만 있으며, 中品은 경기도와 함길도에는 없다. 下品은 경상도가 많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평안도지역은 비슷하다.

품등기록은 조선시대 초기의 窯業에서만 보이는 특별한 현상이며 자기소에 공통으로 적용되어 품등의 선정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품등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가를 밝혀보는 것은 조선시대 초기 전국의 磁器 제작상황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姜敬淑은 上品 磁器所에서는 良質의 粉青沙器와 함께 적은 양의 白磁가 생산되었으며, 中品과 下品 자기소에서는 上品 자기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분청사기를 제작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기소의 품등기준은 생산된 자기의 종류와 품질의 차이에 있다는 것이다.[2]

朴敬子는 상품 자기소에서 백자가 제작된 것은 확실하지만 중품자기소와 하품 자기소에서 생산된 분청사기에서는 뚜렷한 품질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기소의 品을 上中下로 결정한 것은 해당 州縣의 守令이 판단하였고 품등기준은 자기소에 속한 숙련된 기술이 있는 匠人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고 보았다.[3] 즉, 강경숙은 자기소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백자와 분청사기의 품질을 근거로 품등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박경자는 그릇을 만드는 주체인 匠人을 근거로 품등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두 견해는 현재 자기소 품등기준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지만 품등별 자기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으며, 품등관련 문헌기록에 관한 검토는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世志』磁器所에 上品·中品·下品으로 品等이 부여되었다는 것은 자기의 품질과 분명히 관련이 있을 것이며, 태종 17년(1417) 各 官司에 공납한 沙器(磁器)의 예로 보아[4] 磁器의 使用處 또한 달랐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기의 품질과 사용처에 주목하여 上品·中品·下品 磁器所가 모두 있는 경상도 자기소를 중심으로 문헌기록을 참고하고 자기를 비교·분석하여『世志』자기소의 품등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표 1.『世宗實錄地理志』磁器所 品等 記錄

분류 / 지역	磁器所				합계
	上品	中品	下品	표기 없음	
京畿道	1		12	1	14
忠淸道		12	11		23
慶尙道	3	8	26		37
全羅道		15	13	3	31
江原道		2	2		4
黃海道		6	6		12
平安道		1	12		13
咸吉道			2	3	5
합계	**4**	**44**	**84**	**7**	**139**

Ⅱ. 磁器의 品質

『慶尙道地理志』(이하『慶志』)에는 磁器가 土産貢物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磁器貢物은『世志』의 磁器所와 거의 일치하지만[5]『世志』에는『慶志』에 없던 磁器所의 數·위치·品等이 八道에 공통적으로 기록된다.『世志』의 磁器所는 磁器의 需要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으며 太宗 7년(1407)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鄭杜熙,「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Ⅰ)」,『歷史學報』69, 歷史學會, 1976, 82~83쪽.
2) 姜敬淑,『粉青沙器硏究』, 一志社, 1986, 24~26쪽 ;「≪세종실록≫ <지리지> 자기소·도기소-충청도를 중심으로-」,『한국 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397쪽.
3) 朴敬子,「朝鮮 15世紀 磁器貢納에 관한 硏究」,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67~69쪽.
4)『太宗實錄』卷33, 17年 4月 20日 丙子 "戶曹上器皿除弊事宜 啓曰…願自今庫納砂木器外貢元數內 司饔房·司膳署·禮賓·典祀·內資·內贍寺·恭安·敬承府等各司 分定上納 各其司考察出納 以革積弊…"
5) 鄭杜熙, 앞의 논문, 1976, 70~73쪽.

www.kci.go.kr

<史料 1>『太宗實錄』卷13, 7年 1月 19日 甲戌.
영의정부사 성석린이 上書하여 時務 20조를 진달하였는데, 명하여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다. (중략) 金銀으로 만든 器皿은 宮內와 국가에서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中外에 令을 내려 일체 금지하고, 나라 안이 모두 沙器와 漆器를 쓰게 하소서. (중략) 命하기를, "한결같이 의정부에서 의논한 것에 의하여 시행하라."하였다.[6]

<史料 1>은 태종 7년(1407)부터 왕실에서 일부 사용할 器皿인 金銀器를 제외하고 전국에 沙器(磁器)를 사용하라는 王命이다. 기명은 日常器와 祭器 등이 포함되며 중앙의 궁궐과 八道의 官衙·民家에서 모두 사용하기 위한 沙器(磁器)의 需要가 급증하여 沙器(磁器)를 제작할 수 있는 가마가 많아지게 되었을 것이다. 1425년에 편찬된『慶志』에 沙器(磁器)는 土産貢物로 기록되었으며 1424년~1432년에 조사된『世志』에는 上·中·下의 品等別 磁器所가 기록되어 있어 자기의 제작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慶志』에는 土産貢物로 沙器(磁器)가 기록된 반면『世志』에는 자기소에 品等이 부여되었는데 품등을 정한 주체와 품등의 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자기소의 실태조사는 각 道에 소속된 守令에 의해 진행되었을 것이다.[7] 수령은 해당 府·牧·郡·縣에 있는 가마[8]의 數·匠人의 數·자기의 품질·자기의 생산량 등의 1차 자료를 道觀察使에게 보고하고 도관찰사는 이를 취합하여 중앙의 戶曹에 보고했을 것이며, 戶曹는 禮曹와의 협의를 한 후 禮曹는 전국의 자기소 품등에 관한 規式을 하달했다고 판단된다.[9] 다음으로 자기소의 품등 선정 기준은 貢物과 관련된 戶曹의 입장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貢物은 食品·藥材·鑛物·手工業品(磁器 포함) 등으로 각 지역별 土産物이면서 특산물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호조는 이러한 전국의 토산공물이 기록된 貢案[10]을 참고로 각처에 분배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각 처 별로는 토산물의 성격이 다르며 그 品質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본 章에서는 '品'에 관한 문헌기록을 살펴보고,『世志』慶尙道의 上品·中品·下品 磁器所에서 수습된 磁器의 분석을 통하여『世志』磁器所의 品等基準이 '磁器의 品質'에 있음을 제시해 보겠다.

6)『太宗實錄』卷13, 7年 1月 19日 甲戌 "領議政府事成石璘, 上書陳時務二十條, 命下議政府議得…金銀器皿, 除內用國用外, 下令中外, 一切禁止, 國中皆用沙漆器…命一依議政府議得內施行"

7) 朴敬子, 앞의 논문, 2009, 68~69쪽.

8) 磁器所로 정해지기 전이므로 가마라 하였다.

9)『慶志』의 편찬은 각 道의 府·牧·郡·縣을 대상으로 戶曹와 禮曹 소속인 春秋館이 주도한 것으로 보아『世志』磁器所의 품등 선정도 戶曹와 禮曹가 주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0) 貢案에는 各官貢案, 各道貢案, 各司貢案, 戶曹貢案 등이 있었다. 各官貢案은 州·縣 등 지방 각관이 中央 各司나 지방의 監營, 兵營, 水營 등에 상납하기 위하여 비치한 것이다. 各道貢案은 각 도의 감영에서 관할 각관공안을 통합한 것을 보관한 것이다. 各司貢案은 중앙각사가 징수할 貢賦의 종류와 물품명, 액수 및 상납지방 각관 등을 수록한 공안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합 수록한 공안이 호조에 보관되었다. 田川孝三,『李朝貢納制の硏究』, 東京 東洋文庫, 1964, 275~276쪽.

1. 기록을 통해본 '品'의 의미

조선시대의 '品'에 관한 문헌기록은 手工業品인 磁器와 종이(紙), 鑛物인 鐵과 硫黃, 田稅 등의 항목에서 확인된다.

<史料 2>『世宗實錄』卷68, 17年 4月 11日 壬子.
도승지 신인손을 명하여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기를, "지난번에 昌盛을 위로하여 잔치할 때에 황제께서 내려 준 磁器를 사용하지 않았더니, 창성이 말하기를, '왜 쓰지 않습니까.'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려 주신 磁器는 품질이 좋고 본국의 磁器는 품질이 나쁘니, 주인의 탁자에는 좋은 그릇을 놓고 손님의 탁자에는 나쁜 그릇을 놓으면, 손님을 대접하는 뜻에 어그러질까 두렵기 때문이오 하였더니, 창성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주신 것인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여, 강제로 청한 연후에 이를 사용하였다. (후략)."[11]

<史料 2>는 세종 17년(1435) 磁器의 品質에 관한 중요한 기록이다. 明의 使臣인 昌盛이 가져온 황제의 하사품인 자기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에 따라 다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에서 '磁器品'은 磁器의 品質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史料 3>『世宗實錄』卷49, 12年 9月 11日 己酉.
(전략) 윤수가 아뢰기를, "처음 造紙所의 신설을 당하여 모두 이르기를 '종이의 품질이 반드시 南原이나 全州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조지소의 종이 품질이 대단히 좋아서 도리어 남원과 전주의 종이를 쓰지 않고 있사오니, (후략)[12]
<史料 3>은 官司인 造紙所를 설치하면서 종이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

11)『世宗實錄』卷68, 17年 4月 11日 壬子 "命都承旨辛引孫, 往議政府議曰 : '往者慰宴昌盛, 不用欽賜磁器', 昌曰: '何不用乎?' 予曰 : '欽賜磁器品好, 本國磁器品惡. 主卓之設好器, 客卓設惡器, 恐乖待賓之意', 昌曰: '帝賜也, 何妨?' 强而後用之…"

12)『世宗實錄』卷49, 12年 9月 11日 己酉 "…尹粹曰 : 當新設紙造所, 皆以爲紙品必未及南原, 全州, 今紙造所紙品極高, 反不用南原、全州之紙…"

www.kci.go.kr

다는 내용이다. 造紙所는 太宗 15년(1415)에 설치되었고[13] 世宗 2년(1420)에는 造紙所에서 제작한 종이는 이전의 종이에 비해 많이 좋아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해마다 종이를 貢納한 全羅道 全州府와 南原府의 歲貢 부담이 줄어들었다.[14] 그리고 세종 12년(1430)에는 造紙所에서 제작된 종이의 품질이 더욱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史料 4>『世志』全羅道 羅州牧 務安縣.
鐵場이 2이니, 하나는 현의 동남쪽 시구동에 있고, 하나는 현의 남쪽 탄동에 있다. 품질은 모두 上品이다. 鍊鐵 1천 5백 86근을 軍器監에 바친다(후략).[15]

<史料 4>는 全羅道 羅州牧 務安縣의 鐵場, 鐵의 品質, 생산품인 鍊鐵의 貢納量과 貢納處 등을 잘 알 수 있다.『世志』에는 全羅道 羅州牧 務安縣 이외의 지역에도 鐵場·沙鐵·石鐵·正鐵 등이 中品과 下品으로 기록되어 있다. 忠淸道는 中品 2 곳과 下品 3 곳[16], 全羅道는 中品 2 곳[17], 黃海道는 中品 1 곳과 下品 3 곳[18], 咸吉道는 下品 1 곳[19]이다. 따라서 鐵의 '品'은 品質에 따라 上品·中品·下品이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史料 5>『世宗實錄』卷20, 5年 6月 21日 庚午.
(전략) "전날에 차사원이 집사의 명으로 세 가지 품질의 硫黃을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이 품질에 비하여 上中에 해당되는 것은 수장할 것이요, 下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할 것이라.' 하였는데, 이제 원공이 貢納한 유황도 비록 上·中·下의 세 품질이 있으나 (후략)."[20]

<史料 5>는 世宗 5년(1423)에 명나라 사신이 가져갈 硫黃을 上品·中品·下品의 세 가지 품질로 구분하였음을 알 수 있다.

<史料 6>『世宗實錄』卷78, 19年 7月 9日 丁酉.
(전략) 호조에서 아뢰기를 (중략) 대개 옛날에 토지를 맡기고 토질을 분별하던 제도를 본따서, 먼저 여러 도의 토지 품질을 3등급으로 정합니다. 경상도·전라도·충청도는 上等으로 삼고, 경기도·강원도·황해도 3도는 中等으로 삼고, 함길도·평안도 2도는 下等으로 삼으며, 또 본디 정하였던 田籍의 上·中·下 3등에 의거하여 그대로 토지의 품질을 나눕니다. 각도의 등급과 토지 품질의 등급으로써 수세하는 수량을 정합니다 (후략)."[21]

<史料 6>은 토지의 품질을 八道를 대상으로 크게 3등급으로 나눈 후 다시 上·中·下 3등급으로 나누어 田稅의 수량을 정한 내용이다. 土地는 품질에 따라 품등을 정한 것은 貢物인 磁器나 鐵과 같지만 품등에 따라 田稅의 수량을 부여한 것에는 차이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手工業品인 磁器와 紙, 鑛物인 鐵과 硫黃, 田稅 등의 기록에서 '品'의 의미는 모두 '品質'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鐵은 鐵의 생산지인 鐵場과 철의 종류인 沙鐵·石鐵·正鐵 등이 上品·中品·下品의 品等과 함께 생산지의 위치가 기록된 것은 磁器所와 동일하여[22] 주목된다.

2. 慶尙道 磁器所 品等別 磁器의 品質

앞서 문헌기록을 통해 '品'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手工業品인 磁器와 紙,

13)『太宗實錄』卷30, 15年 7月 25日 庚申 "置造紙所…"
14)『世志』京都漢城府 "…造紙所. 在壯義寺洞. 在先事大表箋奏啓咨文所用紙筒, 全羅道全州南原府歲貢之, 多不中用. 今上二年, 特命置所, 抄造工善支良, 紙品比舊甚精. 由是全南二府貢貢之弊始除…"
15)『世志』全羅道 羅州牧 務安縣 "鐵場二, 一在縣東南紫口洞, 一在縣南炭洞. 品皆上. 鍊鐵一千五百八十六斤, 納于軍器監…"
16)『世志』忠淸道 忠州牧 "鐵場一, 在州南 未詘金, 中品"
『世志』忠淸道 淸州牧 全義縣 "鐵場一, 在縣東 西方洞, 中品"
『世志』忠淸道 公州牧 恩津縣 "沙鐵, 産縣南七里, 鵲旨熊田吐串等處, 皆下, 品"
『世志』忠淸道 公州牧 石城縣 "沙鐵, 産縣南 三山里, 下品"
『世志』忠淸道 公州牧 懷德縣 "石鐵, 産縣北二十里 稷洞, 下品"
17)『世志』全羅道 長興都護府 和順縣 "鐵場一, 在縣北 水冷川里, 品中"
『世志』全羅道 長興都護府 同福縣 "鐵場一所, 在縣西靈神寺洞, 品中"
18)『世志』黃海道 豊川郡 殷栗縣 "石鐵, 産縣北十九里 金山里, 中品, 鍊正鐵以貢"
『世志』黃海道 黃州牧 新恩縣 "石鐵, 産縣南二十五里 草田里, 下品"
『世志』黃海道 海州牧 "正鐵, 産州北五十五里 靑山里, 下品"
『世志』黃海道 豊川郡 長連縣 "石鐵, 産縣西 道里剛, 下品, 鍊正鐵以貢"
19)『世志』咸吉道 永興都護府 文川郡 "沙鐵, 産郡西十五里 豆衣山, 下品"
20)『世宗實錄』卷20, 5年 6月 21日 庚午 "…前日差使員以執事之命, 三品其硫黃來曰 : '比乎此而居其上中者藏之, 其下者除之.' 今源公所貢硫黃, 亦雖有上中下三品…"
21)『世宗實錄』卷78, 19年(1437) 7月 9日 丁酉 "…戶曹啓…略倣古者任土辨壤之制, 先定諸道之土品有三等. 慶尙·全羅·忠淸道爲上等, 京畿·江原·黃海三道爲中等, 咸吉·平安二道爲下等. 又據素定田籍上中下三等, 仍分田品, 以各道與田品之等第, 定收稅之數…"
22)『世志』慶尙道 尙州牧 高靈縣 "磁器所一, 在峴東曳峴里上品"
『世志』慶尙道 晉州牧 三嘉縣 "磁器所一, 在嘉樹縣西甘閑里中品"
『世志』慶尙道 安東大都護府 仁同縣 "磁器所一, 在縣東莫谷里下品"

www.kci.go.kr

鑛物인 鐵과 硫黃, 田稅 등의 기록에서 '品'의 의미는 모두 '品質'이었음을 밝혔다. 그렇다면『世志』慶尙道의 上品·中品·下品 磁器에도 品質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世志』慶尙道의 上品 磁器所 2 곳, 中品 磁器所 7 곳, 下品 磁器所 11 곳 등 총 20 곳[23](표 2)에서 출토·수습된 분청사기와 백자를 대상으로 器種, 文樣裝飾技法, 文樣, 胎土, 釉色, 銘文, 窯道具 등을 검토하여 품등별 자기의 제작시기[24], 품등별 자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25](표 3)

표 2.『世宗實錄地理志』慶尙道 磁器所 확인·추정 소재지 比定

번호	『世宗實錄地理志』 上中下品 磁器所	확인·추정소재지	比定 게재지
1	高靈縣東曳峴里 (上品)	慶北 高靈郡 星山面 箕山洞·沙堯洞	權丙卓,『傳統陶磁의 生産과 需要』,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79, 98~99쪽. 姜敬淑,『粉靑沙器硏究』, 一志社, 1986, 338~339쪽.
2	尙州牧 中牟縣北 楸縣里 (上品)	慶北 尙州市 牟西面 大杓里	張東哲,「尙州 大杓里窯址 陶磁片硏究」,『美術史學硏究』257, 한국미술사학회, 2008, 14~15쪽.
3	尙州牧 功城縣 西院洞 (中品)	慶北 尙州市 功城面 于下里	朴敬子,「14世紀 康津 磁器所의 해체와 窯業 체제의 二元化」,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5쪽.
4	星州牧州東黑水里 (中品)	慶北 高靈郡 雲水面 新問洞	權丙卓,『傳統陶磁의 生産과 需要』,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79, 100~101쪽.
5	金山郡黃金所普峴里 (中品)	忠北 永同郡 秋風嶺面 沙夫里	姜敬淑,「世宗實錄「地理志」磁器所·陶器所 硏究- 忠淸道를 중심으로-」,『美術史學硏究』202, 한국미술사학회, 1994, 19~20쪽. 中央文化財硏究院,『永東沙夫里· 老斤里 陶窯址』, 2003, 170~171쪽.
6	軍威縣縣西白峴里 (中品)	慶北 軍威郡 召保面 寶峴里	張東哲「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磁器所 硏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55~56쪽.
7	三嘉縣 嘉樹縣西 甘閣里 (中品)	慶南 陜川郡 佳會面 將臺里·外沙里	國立晋州博物館,『경상남도도요지 지표조사보고서』, 2007, 197~201쪽 東西文物硏究院,『합천 장대마을 도요지(삼가장흥고)유적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보고』, 2008, 21쪽.

23) 張東哲, 「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 磁器所 硏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95~96쪽.
24) 張東哲, 앞의 논문, 2011, 32~94쪽.
25) 연구 대상인 20 곳의 자기소 중 발굴조사가 된 곳은 高靈·金山·三嘉·彦陽·仁同 등 5 곳이다. 나머지 15 곳은 지표조사가 진행되었다. 발굴조사와 지표조사를 통해 수습되는 유물의 수에는 차이가 있어 유물분석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렇지만 上·中·下品 자기소에서 수습된 분청사기는 樣式(器種, 文樣裝飾技法, 文樣)의 공통점이 있어 비교·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번호	『世宗實錄地理志』 上中下品 磁器所	확인·추정소재지	比定 게재지
8	昆南郡南浦谷里 (中品)	慶南 泗川市 昆陽面 松田里	姜敬淑,『粉靑沙器硏究』, 一志社, 1986, 322~323쪽. 國立晋州博物館,『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2004, 51~53쪽.
9	梁山郡南今音山里 (中品)	慶南 梁山市 東面 架山里	梁山文化院,「梁山 文化遺蹟 調査報告書』1996, 125~130쪽. 통도사성보박물관,『梁山의 歷史와 文化』, 2002, 268~269쪽.
10	慶州府西大谷村 (下品)	慶北 慶州市 乾川邑 龍明里	沈志妍,「慶州 西部 洞 出土 官司銘粉靑沙器 硏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13쪽.
11	密陽都護府東栗東里 (下品)	慶南 密陽市 三良津邑龍田里	鄭澄元,「慶南地方 陶磁器의 硏 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31~32쪽.
12	興海郡北長生里 (下品)	慶北 浦項市 興海邑 德城里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포항 문화유적 분포지도』, 2002, 384쪽.
13	慶山縣南 豆也里 助造洞 (下品)	慶北 慶山市 南川面 山田里	慶山市廳 홈페이지
14	彦陽縣南大吐里 (下品)	蔚山廣域市 蔚州郡 三洞面 荷岑里	威德大學校博物館·蔚山大學校博物館,『蔚山「彦陽磁器所」地表調査報告 - 蔚州郡 三同面 荷岑里 陶 窯址-』, 2000, 15~32쪽.
15	靈山縣東新峴里 (下品)	慶南 昌寧郡 釜谷面 靑岩里	鄭澄元,「慶南地方 陶磁器의 硏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49~50쪽.
16	善山都護府海平縣東 鳩等堤里 (下品)	慶北 龜尾市 海平面 昌林里	張東哲「世宗實錄地理志 慶尙道 磁器所 硏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69쪽.
17	晋州牧州西中全里 (下品)	慶南 晋州市 水谷面 孝子里	姜敬淑,『粉靑沙器硏究』一志社, 1986, 26~27쪽. 國立晋州博物館,『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2004, 24~29쪽.
18	晋州牧州東月牙里 (下品)	慶南 晋州市 琴山面 月牙里	國立慶州博物館·慶尙南道 河東郡,『慶南地域 陶窯址 調査報告- 河東郡을 중심으로 -』, 1985, 7~8쪽 國立晋州博物館,『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2004, 12~15쪽.
19	金海都護府東 甘勿也村 (下品)	慶南 金海市 上東面 大甘里	鄭澄元,「慶南地方 陶磁器의 硏究」,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 22~23쪽. 金海市·한국문물연구원,『金海 生林面 鳳林里 靑磁窯址(Ⅰ)』, 2008, 58~64쪽.
20	仁同縣東莫谷里 (下品)	慶北 漆谷郡 架山面 鶴下里·鶴上里	姜敬淑,「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분청사기 가마터 현지조사의견서」, 2003, 1~5쪽. 嶺南文化財硏究院,『漆谷鶴下里 粉靑沙器窯址(Ⅲ)』, 2009, 120~128쪽.

품등별 자기의 제작 시기는 분청사기와 백자의 기법별 편년자료와 준 편년자료를 참고로 하여 크게 1期, 2期, 3期로 설정하였다. 1期는 상감기법의 蓮唐草文과 인화기법의 圓文, 花文, 성긴 菊花文, 촘촘한 국화문 등으로 제작 시기

www.kci.go.kr

는 고려시대 말~1420년경으로 比定하였다. 2期는 인화기법의 집단연권국화문, 귀얄기법, 무문백자, 음각백자 등으로 제작 시기는 1420년경~1450년대로 比定하였다. 3期는 象嵌白磁로 제작 시기는 1460년대~1470년대로 比定하였다.[26] 1期에 해당되는 곳은 중품 자기소인 우하리, 하품 자기소인 학하리・창림리・덕성리 등이다. 2期에 해당되는 곳은 상품 자기소인 기산동, 중품 자기소인 가산리, 하품 자기소인 학상리・청암리・용전리・용명리・산전리 등이다. 1期~2期에 해당되는 곳은 상품 자기소인 대표리, 중품 자기소인 사부리・장대리・보현리, 하품 자기소인 효자리・월아리・대감리・하잠리 등이다. 1期~3期에 해당되는 곳은 상품 자기소인 사부동이다.

상품・중품・하품 자기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첫째, 器種은 대접과 접시이다. 둘째, 문양은 상감기법의 蓮唐草文, 草文, 重圈文 등과 인화기법의 圓文, 花文, 단독국화문, 집단연권국화문 등이 있다. 셋째, 銘文은 상감기법의 銘文 중에서 黑象嵌과 白象嵌을 한 '司膳'銘이 상품자기소인 사부동, 중품자기소인 장대리와 우하리, 하품자기소인 학하리와 덕성리에서 확인되었다. '司膳'銘 상감분청사기의 제작 시기는 1372년~1420년과 1389년~1420년으로 보고 있다. 前者는 官名이 良醞署에서 司膳署로 바뀌는 1372년을 上限으로 하였으며, 下限은 '恭安府'銘 분청사기를 기준으로 하여 1420년으로 설정하였다.[27] 後者는 銘文의 書體가 고려 말기 상감청자와 다르며 단독 인화문의 비중이 높아지고 문양 형태에 변형이 생기는 점, 司饔의 극심한 私取 행위를 막고 허설화된 사선서의 기능을 되찾기 위한 방편으로 1389년 이후에 수취되는 내용자기에 '司膳'을 새기게 했으며 1420년경까지는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았다.[28] 이 두 견해는 제작 시기의 상한은 다르지만 하한은 1420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世志』 경상도 상품・중품・하품 자기소에서 수습된 '司膳'銘 상감분청사기는 『世志』 자기소가 조사된 1424년~1432년 이전에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窯道具로 鉢形匣鉢・透孔匣鉢과 圓筒形・圓盤形 도지미가 있다.

상품・중품・하품 자기소에서 확인되는 차이점은 첫째, 磁器의 종류로 상품 자기소에서는 백자가 제작되었으나 중품・하품 자기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둘째, 胎土와 釉色이다. 상품・중품 자기소의 胎土는 비교적 치밀하며 釉色이 灰綠色을 띠고 있으나 하품 자기소의 胎土는 沙粒이 많아 치밀하지 못하며, 釉色은 黃褐色을 띠고 있다. 셋째, 銘文은 중품 자기소와 하품 자기소에서는 인화기법의 단독국화문과 함께 새겨진 '敬承府', '長興庫', '仁壽府' 등의 순수 官司銘[29]과 인화기법의 집단연권국화문과 함께 시문된 '地域+長興庫・仁壽府'銘 분청사기가 생산되었으나 상품 자기소에서는 官司銘 분청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품등별 자기의 차이점 중 品質과 가장 관련되는 부분은 분청사기의 胎土와 釉色에 있다. 胎土는 상품 자기는 氣孔이 없고 치밀하며, 중품 자기는 약간의 沙粒이 있으나 치밀하다. 하품 자기는 氣孔과 沙粒이 많아 치밀하지 못하다.[30] 釉色은 상품・중품 자기가 灰綠色인 반면 하품 자기는 黃褐色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이 경상도의 상품・중품・하품 자기소에서 제작된 분청사기의 품질의 차이는 충청도의 중품・하품 자기소에서 수습된 분청사기의 품질과 유사하게 보여져 주목된다.[31] 강경숙은 충청도의 중품 자기소인 天安 沙潭里・燕岐 松亭里・公州 佳山里・公州 鶴峰里 등과 하품 자기소인 鎭川 大三洞・靑陽 長谷洞 등에서 수습된 분청사기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하품의 분청사기는 중품 분청사기에 비해 문양의 정교성・양질의 태토・깨끗한 굽깎기・깔끔한 백토분장・성의 있는 만듦새 등이 좋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특징을 참고하여 중품과 하품을 구별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도의 상품 자기소로 比定된 廣州郡 中部面 樊川里에서 수습된 얇고 정교하며 잔 빙렬이 있는 백자는 극소량이 제작되어 御器 및 어기에 버금가는 특수한 경우에 제작되었다고 보았다. 이 내용은 백자와 분청사기라는 차이는 있으나 품질을 기준으로 상품・중품・하품 자기소의 品等을 정했다고 본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상도와 충청도의 중품・하품 자기소에서 수습된 분청사기는 하품의 분청사기가 중품의 분청사기에 비해 품질이 좋지 않은 특징이 유사하게 확인되었다. 지역적인 차이가 있음에도 분청사기의 양식에 따른 제작시기가 같아[32] 중품・하품 자기소에서 수습된 분청사기의 품질이 유사하다

---

26) 필자가 구분한 3期 중 1期와 2期는 姜敬淑 선생이 시기를 구분한 前期(발생기 : 1360년경~1420년경)와 中期(발전기 : 1420년경~1480년경)에 해당된다. 姜敬淑, 앞의 책, 1986, 375쪽. 그러나 상감백자에 관한 시기구분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460년대~1470년대로 比定된 상감백자의 예를 3期로 보았다. 장동철, 앞의 논문, 2011, 26~31쪽.

27) 朴敬子, 「14世紀 康津 磁器所의 해체와 窯業 체제의 二元化」, 『美術史學硏究』238・239, 한국미술사학회, 2003, 121~123쪽.

28) 金允貞, 「高麗末・朝鮮初 銘文靑瓷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92~97쪽, 151~155쪽.

29) 앞서 살펴본 '司膳'銘 분청사기의 양식과 같아 『世志』 磁器所가 조사되는 1424년~1432년 이전에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30) '軟質' 혹은 '硬質'과 같은 용어는 도자기의 태토가 얼마만큼 磁化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개념으로 태토의 입자크기와 氣孔에 따라 磁化가 결정된다고 한다. 李鍾玟, 「麗末~鮮初 硬質白磁로의 이행과정 연구」, 『湖西史學』50, 湖西史學會, 2008, 6~8쪽.

31) 姜敬淑, 앞의 책, 2000, 322쪽, 331~332쪽, 397쪽 참조.

www.kci.go.kr

고 판단된다. 따라서『世志』磁器所의 品等 기준의 하나는 품질을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표 3. 慶尙道 磁器所 品等別 磁器의 特徵 比較 分析表

特徵 \ 品等		上品	中品	下品	備考
白磁		無文白磁 陰刻白磁 象嵌白磁			上品에 국한됨
粉青沙器	器種	大楪, 楪匙, 壺, 盒, 甁	大楪, 楪匙, 壺, 盒, 高足杯	大楪, 楪匙	
	文樣裝飾技法	象嵌, 印花, 귀얄	象嵌, 印花	象嵌, 印花	
	文樣	(象嵌) 龍文, 蓮唐草文, 草文, 重圈文 (印花) 圈文, 花文, 單獨菊花文, 集團連圈菊花文	(象嵌) 蓮唐草文, 草文, 重圈文 (印花) 圈文, 花文, 單獨菊花文, 集團連圈菊花文	(象嵌) 蓮唐草文, 草文, 重圈文 (印花) 圈文, 花文, 單獨菊花文, 集團連圈菊花文	
	胎土	精緻	약간의 沙粒 있으나 精緻	沙粒이 많음	下品은 沙粒 多量
	釉色	灰綠色	灰綠色	黃褐色	下品은 釉色 차이 많음
	銘文	司膳(象嵌)	司膳(象嵌) (印花) 敬承府, 長興庫, 仁壽府, '地域+長興庫・仁壽府'	司膳(象嵌) (印花) 長興庫, 仁壽府, '地域+長興庫・仁壽府'	上品은 '司膳' 銘 이외의 官司銘 없음
	匣鉢 도지미	(匣鉢) 鉢形・透孔 (도지미) 圓筒形・圓盤形	(匣鉢) 鉢形・透孔 (도지미) 圓筒形・圓盤形	(匣鉢) 鉢形・透孔 (도지미) 圓筒形・圓盤形	

32) 경상도 자기소에서 수습된 분청사기의 제작 시기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姜敬淑, 앞의 책, 1986, 375쪽 참조.

Ⅲ. 磁器의 使用處

Ⅱ章에서『世志』上品・中品・下品 磁器所의 品等基準은 磁器의 品質로 보았다. 그렇다면 품등 기준을 단지 품질로만 보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경상도의 상품・중품・하품 자기소에서 出土・收拾된 자기는 器種과 文樣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官司銘이 있는 印花粉青沙器는 상품 자기소에서는 없는 반면 중품 자기소와 하품 자기소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白磁는 상품 자기소에 있는 반면 중품 자기소와 하품 자기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관사명 분청사기와 백자는 품등별로 각기 다른 용도의 사용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章에서는『世志』磁器所의 또 다른 품등 기준이 자기의 사용처에 있음을 제시해보겠다. 이를 위해 문헌기록과『世志』상품・중품・하품 자기소에서 출토・수습된 백자와 관사명 분청사기를 참고로 하여 사용처를 王室[33]과 官司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王室

王室에서 사용한 자기에 관한 기록은 세종 15년(14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史料 7>『世宗實錄』卷62, 15年 11月 1日 庚辰.
(전략) "내가 器皿에는 다 磁器나 漆器를 썼다. 사치할 마음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이 어찌 금은의 많고 적음에 달렸겠는가 "(후략)[34]

<史料 7>은 세종 15년(1433)에 세종이 御器로 磁器[35]나 漆器를 사용했다는 기록이다. 御器인 磁器는 왕실에서 사용된 자기로『世志』상품・중품・하품 자기소가 세종 7년(1424)~세종 14년(1432)에 조사가 완료된 바로 1년 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왕실용 자기는『世志』상품・중품・하품 자기소 중 상품 자기소에서 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로 139 곳의 자기소 중 상품 자기소는 4 곳뿐이며, 상품 자기소로 比定된 廣州와 尙州의 왕실용 자기에 관한 문헌기록과 磁器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內用은 국왕을 비롯한 王室의 구성원의 용도로 보았다. 朴敬子, 앞의 논문, 2009, 70쪽. 국왕과 왕실의 일원이 자기를 사용한 곳은 왕실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용처를 왕실로 보았다.
34)『世宗實錄』卷62, 15年 11月 1日 庚辰 "…予於器皿, 皆用磁漆, 侈心之生不生…"
35) 磁器를 白磁로 본 견해가 있다. 朴敬子, 앞의 논문, 2009, 149쪽.

www.kci.go.kr

<史料 8>『世宗實錄』, 卷27, 7年 2月 15日 乙卯.
(전략) 廣州牧使에게 전지하여, "명나라에 바칠 大·中·小의 白磁 獐本 10개를 精細하게 구워 만들어 올리라." 하였다.[36]

위의 <史料 8>은 왕실용 자기는 아니지만 1425년에 京畿道 廣州에서 白磁가 번조된 중요한 기록이다. 이러한 백자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廣州牧의 상품 자기소로 比定된 樊川里 가마에서 象嵌·印花기법의 분청사기와 匣鉢에 붙은 白磁片(도 1) 이 확인되었다.[37] 또한 廣州의 백자는 왕실의 전용품으로 사용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38] 다음은 尙州의 문헌기록을 살펴보자.

도 1. 匣鉢에 붙은 白磁片

<史料 9>『太宗實錄』卷21, 11年 4月 29日 己未.
內竪 安和尙을 慶尙道 中牟·化寧 등의 縣에 보내어 花器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39]

<史料 9>는 太宗이 內竪(內侍)를 직접 中牟縣에 파견한 것은 왕실용의 花器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이러한 花器제작의 기록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尙州牧 中牟縣의 上品 磁器所로 比定된 大杓里 가마에서 수습한 <粉靑象嵌印花龍文壺片>(도 2-①)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粉靑象嵌印花龍文壺>(도 2-②)와의 비교를 통해 龍文壺가 왕실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40]

[36]『世宗實錄』卷27, 7年 2月 15日 乙卯 "…傳旨廣州牧使, 進獻大中小白磁獐本十事, 精細燔造以進."
[37]姜敬淑은 번천리가마를 '번천분청 2호'로 命名했으며 갑발은 질이 높은 백자 전용임을 강조하고 1425년 왕실에 바친 백자를 생산한 가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姜敬淑, 「15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의 성립과 발전」, 『美術史學硏究』 237, 한국미술사학회, 2003, 78~80쪽.
[38]金英媛,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230쪽.
[39]『太宗實錄』卷21, 11年(1411) 4月 29日 己未 "遣內竪安和尙 于慶尙道中牟化寧等縣 監做花器."
[40]張東哲, 「尙州 大杓里窯址 陶磁片 硏究」, 『美術史學硏究』257, 한국미술사학회, 2008, 20~22쪽.

① 粉靑象嵌印花龍文壺片 尙州 大杓里 가마 수습
② 粉靑象嵌印花龍文壺 국보 제259호 국립중앙박물관
도 2. 粉靑象嵌印花龍文壺

왕실에서 白磁가 사용된 예는 세종 29년(1447)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史料 10>『世宗實錄』, 卷116, 29年 6月 3日 甲子.
禮曹에 전지하기를, "文昭殿과 輝德殿에 쓰는 은그릇들을 이제부터 白磁器로써 대신하라." 하였다.[41]

<史料 10>은 세종 29년(1447) 세종이 왕실인 문소전과 휘덕전에 白磁를 사용하도록 한 내용으로 백자는 왕실에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高靈의 白磁 관련 문헌기록을 살펴보자.

<史料 11>『佔畢齋集』彛尊錄, 先公事業 第4.
고령에서는 해마다 白沙器를 貢物로 바쳤는데 (중략) 그릇의 精緻하고 선결하기가 廣州나 南原의 것보다 우월해졌다.(후략)[42]

<史料 11>은 佔畢齋 金宗直의 아버지 金淑滋가 1442년부터 1448년까지 경상도 고령현감으로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한 것으로, 1440년대에 고령현에서는 매년 공납용 자기로 백자를 제작하였으며, 京畿道 廣州와 全羅道 南原에서

[41]『世宗實錄』卷116, 29年 6月 3日 甲子 "傳旨禮曹 : 文昭·輝德殿所用銀器, 自今代以白磁器"
[42]『佔畢齋集』彛尊錄, 先公事業 第4 "高靈歲貢白沙器…精緻鮮絜居廣州南原之右…"

www.kci.go.kr

도 역시 백자를 공물로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43] 또한 해마다 백사기를 공납한 것으로 보아 1440년대 이전부터 백자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백자기록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高靈縣의 상품 자기소로 比定된 高靈郡 星山面 箕山洞·沙堯洞 가마에서 출토된 無文白磁(도 3-①②)와 象嵌白磁(도 3-③)를 들 수 있다. 무문백자는 1450년대, 상감백자는 146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었다.[44] 또한 尙州牧 中牟縣의 상품 자기소로 比定된 大杓里 가마에서도 145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 無文白磁(도 3-④)와 陰刻白磁(도 3-⑤)가 확인되었다.[45]

① 무문백자대접편
고령 기산동 가마 출토

② 무문백자병, 앙이잔, 고족배편
고령 사부동 가마 출토

③ 백자상감초화접문편병편
고령 사부동 가마 출토

④ 무문백자대접편
상주 대표리 가마 수습

⑤ 백자음각모란문대접편
상주 대표리 가마 수습

도 3. 고령 기산동·사부동 가마 백자와 상주 대표리 가마 백자

43) 朴敬子, 「조선 전기 공납용 백자제작에 따른 분청사기 양식변화」, 『美術史學』 2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0, 299쪽.
44) (재)대동문화재연구원, 『고령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구간(제14공구)내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제1차) -제Ⅱ·Ⅲ구역』, 2010.
45) 張東哲, 앞의 논문, 2008, 12~15쪽.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왕실에서 사용된 백자는 廣州·高靈·尙州 상품자기소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로 첫째, 廣州·高靈·尙州 상품자기소에서 제작된 백자는 無文·陰刻·象嵌백자이며 官司銘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왕실에서 백자를 사용한 시기는 세종 15년(1433)~세종 29년(1447)인데 廣州·高靈·尙州 상품자기소에서 백자가 제작된 시기는 1425년~1460년대인 점이다.

2. 官司

조선시대의 官司에서 사용한 砂器(磁器)에 관한 내용은 태종 17년(1417)의 기록이 있다.

> <史料 12>『太宗實錄』, 卷33, 17年 4月 20日 丙子.
> 戶曹에서 器皿除弊의 事宜를 올려 말하기를 (중략)
> 원컨대, 이제부터는 장흥고에 납부하는 砂器·木器의 外貢元數 안에 司饔房·司膳署·禮賓寺·典祀寺·內資寺·內贍寺·恭安府·敬承府 등 各司의 것도 따로 정하여 上納하게 하고, 각기 그 司에서 출납을 고찰하게 함으로써 적폐(積弊)를 혁파하게 하소서." 하고, 호조에서 또 아뢰기를, "장흥고의 貢案에 있는 砂木器에 금후로는 '長興庫'라 3자(三字)를 새기고, 기타 各司에 납부하는 것도 또한 장흥고의 예에 의하여 각기 그 司號를 새겨서 제품을 만들어 상납하게 하고 (후략)[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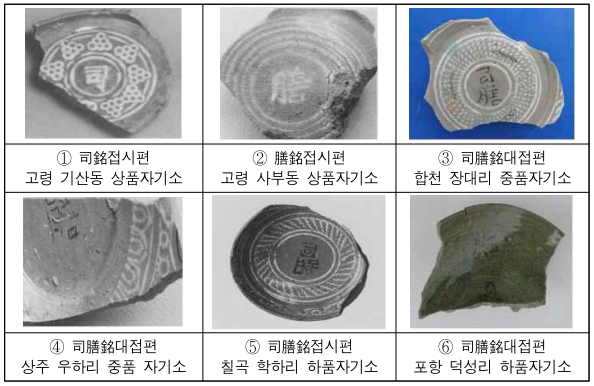
<史料 12>는 태종 17년(1417)에 司饔房·司膳署·禮賓寺·典祀寺·內資寺·內贍寺·恭安府·敬承府 등의 官司에 소용될 그릇에 司號를 長興庫의 예와 같이 넣어 貢納하라는 기록이다.

문헌에 기록된 官司의 銘文이 새겨진 砂器(磁器)는 『世志』 上品·中品·下品 磁器所에서 분청사기로 제작되었다. '司膳[47]銘'은 慶尙道 上品 磁器所로 比定된 高靈郡 星山面 箕山洞 가마와 沙堯洞 가마에서 출토된 <司

46) 『太宗實錄』卷 33, 17年 4月 丙子 "戶曹上器皿除弊事宜 啓曰… 願自今庫納砂木器外貢元數內司饔房·司膳署·禮賓·典祀·內資·內贍寺·恭安·敬承府等各司 分定上納 各其司考察出納 以革積弊 又戶曹啓 長興庫貢案付砂木器 今後刻長興庫三字其他各司所納 亦依長興庫例 各刻司號 造作上納…"
47) '司膳'銘 분청사기의 제작 시기의 하한은 1420년으로 보고 있다. 註 27과 註 28의 논문 참조. 따라서 '司膳'銘 분청사기는 『世志』 磁器所가 조사된 1424년~1432년 이전에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銘접시편>(도 4-①)과 <膳銘접시편>(도 4-②)이 있다. 慶尙道 中品 磁器所[48]로 比定된 陜川郡 佳會面 將臺里 가마에서 출토된 <司膳銘대접편>(도 4-③)과 尙州市 功城面 于下里 가마에서 수습된 <司膳銘대접편>(도 4-④)이 확인된다. 慶尙道 下品 磁器所[50]로 比定된 漆谷郡 架山面 鶴下里 가마에서 수습된 <司膳銘접시편>(도 4-⑤)과 浦項市 興海邑 德城里 가마에서 수습된 <司膳銘대접편>(도 4-⑥) 등이 확인된다.



① 司銘접시편
고령 기산동 상품자기소

② 膳銘접시편
고령 사부동 상품자기소

③ 司膳銘대접편
합천 장대리 중품자기소

④ 司膳銘대접편
상주 우하리 중품 자기소

⑤ 司膳銘접시편
칠곡 학하리 하품자기소

⑥ 司膳銘대접편
포항 덕성리 하품자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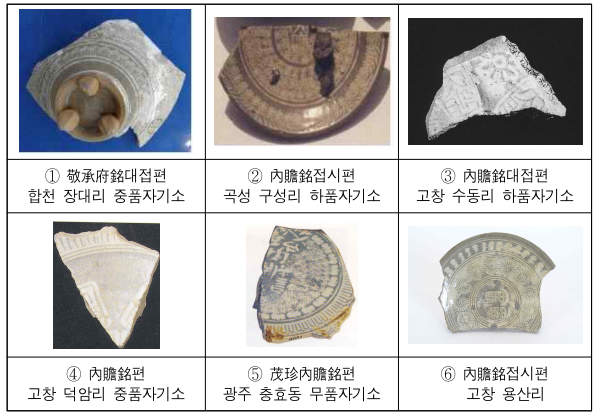
도 4. 司膳銘 粉靑沙器

敬承府[51]銘은 慶尙道 中品 磁器所[52]로 比定된 陜川郡 佳會面 將臺里 가마에서 출토된 <敬承府銘대접편>(도 5-①)[53]이 확인된다. 內贍[54]銘은 全羅道

48) 『世志』 慶尙道 尙州牧 高靈縣 "磁器所一, 在峴東曳峴里上品"
49) 『世志』 慶尙道 晉州牧 三嘉縣 "磁器所一, 在嘉樹縣西甘閑里中品"
『世志』 慶尙道 尙州牧 "磁器所三, 一在中牟縣北楸縣里上品, 一在中牟東已未隈里, 上品, 一在功城縣西院洞中品"
50) 『世志』 慶尙道 安東大都護府 仁同縣 "磁器所一, 在縣東莫谷里下品"
『世志』 慶尙道 慶州府 興海郡 "磁器所一, 在郡北長生里下品"
51) 敬承府는 太宗 2년(1402) 元子府로 출발해서 2년 후인 태종 4년(1404)에 讓寧大君 禔를 世子로 책봉하면서 世子府가 된다. 이후 태종 18년(1418) 세자를 추방하고 대신 忠寧大君을 왕세자로 삼은 후 順承府가 되어 경승부는 폐지된다. 姜敬淑, 앞의 책, 1986, 31쪽.
52) 『世志』 慶尙道 晉州牧 三嘉縣 "磁器所一, 在嘉樹縣西甘閑里中品"
53) 東西文物硏究院, 『합천 장대마을 도요지(삼가장홍고)유적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보고』, 2008.
54) 內贍寺는 고려의 제도를 따라 德泉庫가 그대로 존속되다가 太宗 3년(1403)에 내섬시로 개칭된

下品 磁器所[55]로 比定된 谷城郡 龜城里 가마에서 출토된 <內贍銘접시편>(도 5-②)[56], 全羅道 下品 磁器所[57]로 比定된 高敞郡 富安面 水東里 가마에서 수습된 <內贍銘대접편>(도 5-③)[58], 全羅道 中品 磁器所[59]로 比定된 高敞郡 孔音面 德岩里 가마에서 수습된 <內贍銘편>(도 5-④)[60] 등이 확인되었다.

全羅道의 品이 없는 자기소[61]로 比定된 光州市 北歐 忠孝洞 가마에서 수습된 <茂珍內贍銘편>(도 5-5)[62]이 있다. 또한 자기소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高敞 龍山里 가마에서 수습된 <內贍銘접시편>(도 5-⑥)[63]이 확인되었다.



① 敬承府銘대접편
합천 장대리 중품자기소

② 內贍銘접시편
곡성 구성리 하품자기소

③ 內贍銘대접편
고창 수동리 하품자기소

④ 內贍銘편
고창 덕암리 중품자기소

⑤ 茂珍內贍銘편
광주 충효동 무품자기소

⑥ 內贍銘접시편
고창 용산리

도 5. 敬承府銘·內贍銘 粉靑沙器

다. 忠宣王(1309~1313년)때 德泉倉이란 관청이 있다가 忠肅王 12년(1325)에 덕천고가 된다. 忠穆王(1345~1348년)때 德泉倉으로 되었다가 다시 恭愍王 4년(1355)에 官과 糾正을 없애고 提擧別監을 두니 이때부터 다시 德泉庫로 되어 조선시대로 이어진다. 내섬시는 各 宮殿에 대한 供上, 2品 이상에게 주는 술, 倭·野人에게 주는 음식과 織造 등의 일을 맡아보았으며 正祖 24년(1800)까지 존속한다. 姜敬淑, 앞의 책, 1986, 46쪽.
55) 『世志』 全羅道 南原都護府 谷城縣 "磁器所一, 在縣南牛谷下品"
56) 全南文化財硏究院·谷城郡, 『谷城 龜城里 陶窯址』, 2005, 64~66쪽.
57) 『世志』 全羅道 全州府 古阜郡 "磁器所二, 皆 在郡西富安串品下"
58) 국립전주박물관, 『全北의 朝鮮時代 陶窯址』, 1997, 31~34쪽.
59) 『世志』 全羅道 羅州牧 高敞縣 "磁器所一, 在縣西德巖里品中"
60) 국립전주박물관, 앞의 책, 1997.
61) 『世志』 全羅道 長興都護府 茂珍郡 "磁器所一, 在郡東利帖"
62) 국립광주박물관, 『光州 忠孝洞窯址』, 1992.
63) 호남문화재연구원, 『高敞 龍山里 窯址』, 2004.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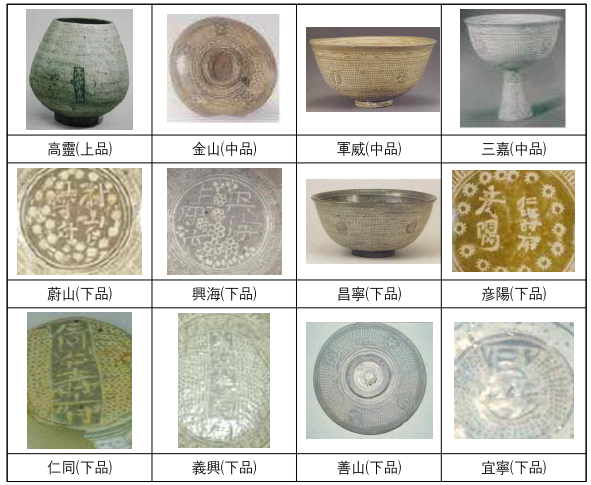
禮賓[64]銘과 內資寺[65]銘은 忠淸道 中品 磁器所[66]로 比定된 公州市 反浦面 鶴峯里 가마에서 출토된 <禮賓銘대접편>(도 6-①)과 <內資寺銘대접편>(도 6-②)이 확인된다.[67] 江原道 中品 磁器所[68]로 比定된 楊口郡 松峴里 가마에서 수습된 <白磁禮賓寺銘초벌접시편>(도 6-③)과 <白磁恭安府[69]銘접시편>(도 6-④)이 확인된다.[70] 또한 자기소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高敞 龍山里 가마에서 수습된 <粉靑沙器禮賓銘대접편>(도 6-⑤)과 <白磁內資寺銘대접편>(도 6-⑥)이 확인되었다.[71]

① 禮賓銘대접편(철화) 공주 학봉리 중품자기소 | ② 內資寺銘대접편(철화) 공주 학봉리 중품자기소 | ③ 白磁禮賓寺銘초벌접시편 양구 송현리 중품자기소
④ 白磁恭安府銘접시편 양구 송현리 중품자기소 | ⑤ 粉靑沙器禮賓銘대접편 고창 용산리 | ⑥ 白磁內資寺銘대접편 고창 용산리

도 6. 禮賓銘·內資銘 粉靑沙器·白磁

地域銘과 함께 새겨진 仁壽府[72]銘과 長興庫[73]銘은 慶尙道의 중품 자기소와 하품 자기소에서 집중 제작되었다.[74](도 7, 8)

官司銘이 있는 분청사기와 백자를 제작한 자기소는 다음과 같다. 敬承府銘 분청사기는 경상도 중품자기소, 恭安府銘 백자는 강원도 중품자기소, 內贍銘 분청사기는 전라도 중·하품 자기소, 內資銘 분청사기는 충청도 중품자기소, 禮賓銘 분청사기는 충청도 중품자기소, 禮賓銘 백자는 강원도 중품자기소, 地域銘과 함께 새겨진 仁壽府銘분청사기와 長興庫銘분청사기는 경상도 중·하품자기소 등에서 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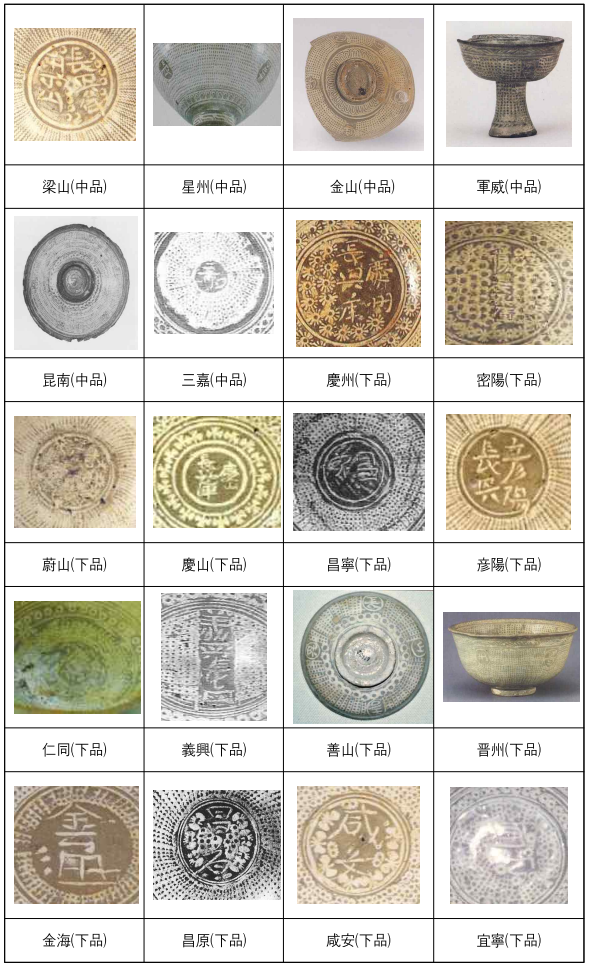


高靈(上品) | 金山(中品) | 軍威(中品) | 三嘉(中品)
蔚山(下品) | 興海(下品) | 昌寧(下品) | 彦陽(下品)
仁同(下品) | 義興(下品) | 善山(下品) | 宜寧(下品)

도 7. 『世志』 慶尙道 磁器所 '地域+仁壽府'銘 粉靑沙器

64) 禮賓寺는 고려 太祖 4년(921)에 처음 설치되어 조선으로 계승된 관청으로 賓客, 燕享의 일을 담당했으며 고종 31년(1894)에 폐지되었다. 姜敬淑, 앞의 책, 1986, 48쪽.
65) 內資寺는 內贍寺와 함께 태종 3년(1403) 고려의 義成庫가 內資寺로 된다. 이곳에서는 宮中에서 쓰는 쌀, 국수, 술, 간장, 기름, 꿀, 채소, 과일, 內宴, 織造 등의 일을 맡아보는 官司로 高宗 19년(1882)에 폐지된다. 姜敬淑, 앞의 책, 1986, 47쪽.
66) 『世志』 忠淸道 公州牧 "磁器所一, 在州東東鶴洞中品"
67) 金英媛,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94쪽.
68) 『世志』 江原道 春川都護府 楊口縣 "磁器所二, 一在縣北乾川, 一在方山東長平, 皆中品"
69) 恭安府는 定宗의 上王府로서 定宗 2년(1400)에 세워졌다가 1420년 정종이 죽은 다음해 仁寧府에 병합되어 폐지되는 관청이다. 姜敬淑, 앞의 책, 1986, 28쪽.
70) 방산자기박물관, 『양구 방산백자 600년의 빛』, 2007.
71) 호남문화재연구원, 앞의 책, 2004.
72) 仁壽府는 정종 2년(1400) 2월에 동생 靖安公(芳遠)을 王世子로 세우고 軍國重事를 관장케 한 후 바로 世子府를 설치하여 仁壽府라 했으며 정종 2년 11월에 왕은 왕세자인 芳遠에게 禪位하므로 기록으로는 明記되지 않았으나 世子府로서의 인수부는 1400년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 간 존속한 셈이다. 이후 1418년(世子府인 敬承府가 廢止된 해)부터 世祖元年(1455) 德寧府로 改稱되었다가 1457년에 仁壽府로 復稱되었고 世祖 10년(1464)에 仁壽府는 革罷되었다. 姜敬淑, 앞의 책, 1986, 45쪽.
73)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從五品衙門, 長興庫條 : 長興庫는 돗자리·油芚·紙地 등을 관리하고 궐내의 여러 관청에서 쓰는 물품을 공급하는 곳이며 沙器도 공급품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姜敬淑, 앞의 책, 1986, 49쪽.
74) 상품자기소에서는 "高靈"의 地域銘과 "仁壽府"銘이 새겨진 분청사기가 유일하게 확인된다.

www.kci.go.kr



梁山(中品)	星州(中品)	金山(中品)	軍威(中品)
昆南(中品)	三嘉(中品)	慶州(下品)	密陽(下品)
蔚山(下品)	慶山(下品)	昌寧(下品)	彦陽(下品)
仁同(下品)	義興(下品)	善山(下品)	晋州(下品)
金海(下品)	昌原(下品)	咸安(下品)	宜寧(下品)

도 8.『世志』慶尙道 磁器所 '地域+長興庫'銘 粉靑沙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敬承府銘 분청사기와 恭安府銘 백자를 제외하고는 內贍銘 분청사기는 전라도 중·하품자기소, 內資銘 분청사기와 禮賓銘 분청사기는 충청도 중품자기소, 地域銘과 함께 새겨진 仁壽府銘 분청사기와 長興庫銘 분청사기는 경상도 중·하품자기소에서 제작되었다. 따라서 지역은 다르지만 各 道의 중·하품자기소에서는 각기 다른 사용처인 官司에 분청사기와 백자를 貢納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世志』磁器所의 品等基準을 磁器의 品質과 磁器의 使用處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磁器의 品質은 문헌기록과『世志』慶尙道 上品·中品·下品 磁器所에서 출토·수습된 자기를 분석하였다.

문헌기록에 있는 '品'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手工業品인 磁器와 紙, 鑛物인 鐵과 硫黃, 田稅 등의 기록에서 '品'의 의미는 모두 '品質'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世志』경상도의 上品 磁器所 2 곳, 中品 磁器所 7 곳, 下品 磁器所 11 곳 등 총 20 곳에서 출토·수습된 분청사기를 대상으로 器種, 文樣裝飾技法, 文樣, 胎土, 釉色, 銘文, 窯道具 등을 검토해 보았다. 품등별 자기의 차이점 중 品質과 가장 관련되는 부분은 분청사기의 胎土와 釉色에 있었다. 胎土는 상품 자기는 氣孔이 없고 치밀하며, 중품 자기는 약간의 沙粒이 있으나 치밀하다. 하품 자기는 氣孔과 沙粒이 많아 치밀하지 못하다. 釉色은 상품·중품 자기가 灰綠色인 반면 하품 자기는 黃褐色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이 경상도의 상품·중품·하품 자기소에서 제작된 분청사기의 품질의 차이는 충청도의 중품·하품 자기소에서 수습된 분청사기의 비교를 통해 하품의 분청사기가 중품의 분청사기에 비해 품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世志』磁器所의 品等基準의 하나는 '磁器의 品質'을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판단하였다.

磁器의 使用處는 문헌기록과『世志』상품·중품·하품 자기소에서 출토·수습된 분청사기와 백자를 참고로 하여 王室과 官司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王室用 磁器는『世志』상품 자기소로 比定된 廣州, 高靈, 尙州 등의 가마에서 출토·수습된 백자를 참고로 하였다. 왕실에서 사용된 백자는 廣州·高靈·尙州 상품자기소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첫째, 廣

www.kci.go.kr

州・高靈・尙州 상품자기소에서 제작된 백자는 無文・陰刻・象嵌백자이며 官司銘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왕실에서 백자를 사용한 시기는 세종 15년(1433)~세종 29년(1447)인데 廣州・高靈・尙州 상품자기소에서 백자가 제작된 시기는 1425년~1460년대인 점이다.

官司에서 사용된 磁器는 官司銘 粉青沙器의 예를 살펴보았다. 敬承府銘 분청사기와 恭安府銘 백자를 제외하고는 內贍銘 분청사기는 전라도 중・하품자기소, 內資銘 분청사기와 禮賓銘 분청사기는 충청도 중품자기소, 地域銘과 함께 새겨진 仁壽府銘 분청사기와 長興庫銘 분청사기는 경상도 중・하품자기소에서 제작되었다. 各 道의 중・하품자기소에서는 각기 다른 사용처인 官司에 분청사기와 백자를 貢納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따라서 『世志』 磁器所의 또 하나의 品等基準은 '磁器의 使用處'를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보았다.

▌투고일 2013년 7월 22일 |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22일 |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30일▐

참고문헌

<사료>

『太宗實錄』

『世宗實錄』

『慶尙道地理志』

『世宗實錄地理志』

『佔畢齋集』

<국내>

정두희, 「朝鮮初期 「地理志」의 編纂(Ⅰ)」, 『歷史學報』69, 歷史學會, 1976.

鄭良謨・香本不苦治 編, 「李朝陶磁の窯跡と出土品」, 『世界陶磁全集』19, 李朝, 小學館, 1980.

강경숙, 『粉青沙器硏究』, 一志社, 1986.

국립중앙박물관, 『光州忠孝洞窯址-粉青沙器・白磁窯址 퇴적층 조사』, 1992.

국립전주박물관, 『全北의 朝鮮時代 陶窯址』, 1997.

강경숙, 「≪세종실록≫ <지리지> 자기소・도기소-충청도를 중심으로-」, 『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2000.

통도사성보박물관, 『梁山의 歷史와 文化』, 2002.

강경숙, 「15세기 경기도 광주 백자의 성립과 발전」, 『美術史學硏究』237, 한국미술사학회, 2003.

권소현, 「朝鮮時代象嵌白磁의 編年 硏究」, 『美術史學硏究』240, 한국미술사학회, 2003.

김영원, 『조선시대 도자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박경자, 「14世紀 康津 磁器所의 해체와 窯業 체제의 二元化」, 『美術史學硏究』238・239, 한국미술사학회, 2003.

심지연, 「慶州 西部洞 出土 官司銘 粉青沙器 硏究」,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중앙문화재연구원, 『永東 沙夫里 · 老斤里 陶窯址』, 2003.

국립진주박물관, 『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2004.

호남문화재연구원, 『高敞 龍山里窯址』, 2004.

전남문화재연구원・곡성군, 『谷城 龜城里 陶窯址』, 2005.

www.kci.go.kr

국립중앙박물관,『계룡산 도자기』, 2007.
방산자기박물관,『양구 방산백자 600년의 빛』, 2007.
동서문물연구원,『합천 장대마을 도요지(삼가장흥고)유적 문화재발굴(시굴)조사 약보고』, 2008.
이종민,「麗末~鮮初 硬質白磁로의 이행과정 연구」,『湖西史學』50, 湖西史學會, 2008.
장동철,「尙州 大杓里窯址 陶磁片 硏究」,『美術史學硏究』257, 한국미술사학회, 2008.
박경자,「朝鮮 15世紀 磁器貢納에 관한 硏究」,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김봉준,「銘文資料를 통해본 廣州牛山里窯址群의 性格」,『美術史學硏究』266, 한국미술사학회, 2010.
대동문화재연구원,「고령 88올림픽고속도로 확장구간(제14공구)내 유적발굴조사 지도위원회(제1차)-제Ⅱ·Ⅲ구역」, 2010.
동서문물연구원,『합천 장대리 도요지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집』, 2010.
박경자,「조선 전기 공납용 백자제작에 따른 분청사기 양식변화」,『美術史學』24,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10.
김윤정,「高麗末·朝鮮初 銘文靑瓷 硏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장동철,「世宗實錄 地理志 慶尙道 磁器所 硏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국외>
田川孝三,『李朝貢納制の硏究』, 東京 東洋文庫, 1964.
大阪東洋陶磁美術館,『三島曆手-企劃展シリズ 15』, 大阪, 1990.

Abstract

A Study of grade standard of Ceramic Factory in Geography Monograph of King Sejong - Focus on Gyeongsang-do -

Jang, Dong-Cheol

In Geography Monograph of King Sejong(『世宗實錄地理志』), there are 139 places of ceramic factories(磁器所) in the eight provinces(八道) and the number, the location, and the grade of the ceramic factories. Therefore, the record is a very important text of understanding situation for production of ceramics in the early of the Joseon Dynasty. As the investigation processed by regional groups, studies of ceramic factories have determined the features of the ceramics classified by the grade, so far. However, the study of how the standard of the grade as high, middle, and low quality is selected has been insufficient, until now.

There is a purpose in this thesis which are to study the grade standard of the ceramic factory in Geography Monograph of King Sejong according to compare and analyze ceramics with reference to literature record for a grade standard of high, middle, and low-quality ceramic factory with focusing on quality and used place of ceramic.

As a result of finding the meaning of 'poom(品)' in some literature records, the meaning of the letter is quality in the records of ceramic, paper, iron, sulfur, tax of farmland, and so forth.

An object of the study is the grayish-blue-powdered celadon discovered at the 20 ceramic factories in Gyeongsang-do in Geography Monograph of King Sejong: the two high-quality ceramic factories, the seven middle-quality ceramic factories, and the eleven low-quality ceramic factories. And some points, model of ceramic, technique of pattern ornament, pattern, clay, glaze color, inscription, the instrument used in kiln, and so far, are examined by the objects. The clay and glaze color

www.kci.go.kr

are related to the quality of the ceramic among the different points of the Grayish-blue-powdered celadon's quality. In the case of the clay, the first, high-quality ceramics do not have stoma and is elaborated. The second, middle-quality ceramics have a little grain of sand but is detailed. The last, low-quality ceramics are not elaborated for a lot of stoma and grain of sand. In the case glaze color, high and middle-quality ceramics are greenish gray, but low-quality ceramics are yellowish brown. The reason of the difference of the quality is that the low-quality ceramics are worse condition than the middle-quality ceramics are though comparison with the Grayish-blue-powdered celadon from middle and low-quality ceramic factories in Chungchong-do. Therefore, the grade standard of the ceramic factory in Geography Monograph of King Sejong is considered by the quality of the ceramic.

There could be divided a royal family and a government office for a used place of ceramic with reference to the Grayish-blue-powdered celadon and the White porcelain from literature record and Geography Monograph of King Sejong. So, it is bound to that the White porcelain for the royal family are from Gwangju(廣州), Goryeong(高靈), and Sangju(尙州) as a high-quality ceramic factory. The reasons are that the White porcelain from the high-quality ceramic factory are patternless, intaglio, and inlaid work porcelain without a inscription of a government office. The time of the using the White porcelain in royal family is from 1433(15years of King Sejong) to 1447(29years of King Sejong), however, the time of production of the White porcelain in the high-quality ceramic factories such as Gwangju(廣州), Goryeong(高靈), and Sangju(尙州) is from 1425 to 1460s.

The case of the ceramics in used the governmen office is checked by the Grayish-blue-powdered celadon with inscription. The Grayish-blue-powdered celadon with Neseom inscription(內贍銘) is from the middle and low-quality factories in Jeonla-do. Yebin-si(禮賓寺銘) and Neja-si inscriptions(內資寺銘) are from the middle-quality ceramic factories in chungcheong-do. Jangheung-go(長興庫) and Insu-bu inscriptions(仁壽府) with name of province are from in the middle and low-quality ceramic factories in Gyeongsang-do. As a result, Each middle and low-quality factories in the eight provinces payed tributes such as the Grayish-blue-powdered celadon and the White porcelain to each the government office. Therefore, the other grade standard of the ceramic is considered by used places of ceramics.

Key words : Geography Monograph of King Sejong(『世宗實錄地理志』), Gyeongsang-do, high·middle·low-quality ceramic factories, a grade standard, a meaning of 'poom(品)', a quality of ceramic, a used place of ceramic, a royal family, a government office.

www.kci.go.kr